

생활 곳곳 '요소수 대란'...장기화 우려에 불안 확산

디젤차 장거리 렌트 주저하고 LPG·휘발유 차량 대여 문의 늘어 물류·교통·건설현장 타격...농민들도 비료 확보 어려워 '발동동'

광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은 최근 요소수 파동이 빚어지면서 장거리 이용자들에게 디젤차를 빌려주지 않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요소수 가격이 10 l에 10만원까지 오르면서 10만 원에 렌트해줬다가 10만원 짜리 요소수를 채워 넣게 되면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아서다. 광주시 동구 신안동 A 렌터카 업체 대표도 디젤차를 빌리려는 고객들에게 목적지를 확인한 뒤 빌려주고 있다.

A씨가 보유한 렌터카는 100대로, 15대가 요소수를 넣는 디젤 차다. 창고에 확보한 2주일 치 요소수가 떨어지면 기약없이 차량 15대를 묶어놔야 한다는 게 A씨 설명이다.

중국발 요소수 파동이 일상 생활 속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새다. 요소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직업상 장거리 출장이 많은 김인영(31·광주시 북구 연제동)씨는 최근 자신의 디젤 SUV 대신,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김씨의 2019년식 디젤차량의 요소수는 현재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요소수를 구매 넣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거리 출장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는 게 불안해 렌터카까지 알아보는 상황이다.

김씨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길어질 것 같아 LPG나 휘발유차량을 빌리려고 문의중"이라며 "자칫 렌터카 빌리는 일도 어려워질 것 같아 미리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렌터카 업체에는 김씨 같은 영업직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요소수가 필요없는 휘발유와 LPG차량 대여 가능 여부 및 비용을 묻는 문의가 하루 10건 이상 걸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미 비상 상황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8일 "한 달 분 재고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대로 간다면 물류, 교통, 건설 현장에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긴급 수급방안에다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요소수를 확보한 주유소를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무거운 짐을 실은 화물차의 경우 서울 왕복 700km 기준 10 l가 필요한데, 가격도 많게는 10배 까지 오르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버거워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화물연대 관계자는 "그래도 요소수가 남아있는 화물차 전용 주유소가 몇

곳 되지 않아 최근 매일 같이 요소수를 넣으려는 차량들로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선다"고 했다.

농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겨울배추와 겨울무 생장에 필요한 비료 확보가 여의치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농사용 무기질비료의 핵심 구성 성분인 요소 품귀로 무기질비료 가격은 14.8%나 뛰었다. 이마저도 농협 창고와 일반 비료 상회에서는 구할 수 없는 상태다.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는 사재기 현상도 벌어질 태세다.

요소수 부족에 대형 트럭터 운행이 멈춰서면서 이맘때때 재배 및 수확을 마친 작물의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물들을 흰색 비닐(곤포)로 감아 포장하는 '곤포 사일리지' 작업도 대부분 중단됐다.

진보당 전남도당 농민위원회는 앞서 지난 5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소수 대란에 따른 농업피해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수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베트남에서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200 t을 도입하는 등 1만 t의 물량을 수입하는 방안을 협의중이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또 이번주 중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7000 l를 들여올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방차 멈추면 안돼요” 요소수 익명 기부 행렬

광주·목포 등 119안전센터 요소수·간식 등 전달 잇따라

요소수 품귀 현상에 광주·전남지역 소방서를 찾아 요소수를 기부하고 떠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광주시·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께 무안남양119안전센터를 찾은 한 여성이 요소수 30 l를 기부했다.

이 여성은 지난 10월 두피에 열상을 입은 아들이 구급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며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에 소방차가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 요소수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날 목포에서는 한 SUV 차량 운전자가 청사 주차장에 요소수 10 l 두고 출연이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장성 119안전센터와 광양 중마119안전센터에도 익명의 기부 행렬이 잇따랐

다. 광주에서는 8일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광산소방서 차고 앞에 나타난 한 시민이 요소수 1통(10 l)을 두고 떠났다. 기부자는 요소수 외에도 빵과 우유 등 간식거리를 함께 놓고 자리를 떠났다. 광산소방서 뿐만 아니라 동부소방서 대인119안전센터, 서부소방서 화정 119안전센터, 북부소방서 문흥 119안전센터, 광산소방서 첨단 119안전센터에도 요소수와 간식 등이 전달됐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기부자가 한 사람은 아니지만 함께 기부에 나서기로 한 일행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기부행렬이 잇따르고 있지만 광주시·전남도 소방본부는 각각 6개월 안팎의 사용분을 확보하고 있어 구조·구급 활동에는 당분간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돈 등 속여 16억원 끌궂 40대 여성 징역 4년 선고

사돈이라 믿고 건네준 돈 수천만원을 받아 쟁건 보험설계사 출신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사돈관계인 B씨에게 '좋은 보험상품이 있으니 가입하라'며 "일시불로 납부하면 원금 보장에 매년 자동 갺신되고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1200만원을 받아 쟁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듬해 B씨 언니에게도 전화해 같은 방법으로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낸 C씨 부부에게도 접근, '매월 보험 실적을 맞추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보험설계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5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받아 쟁건 돈만 16억원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를 변제하긴 했지만 피해자들에게 8억원 넘는 돈을 아직 갺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공동체 우수 마을활동 사례 모았어요 8일 오전 광주 서구청 1층 로비에서 '2021 마을공동체 with 공유 활동사진 전시회'가 열려 시민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한 우수 마을활동 사례를 알리고자 개최했다. <광주시 서구청 제공>

윤석열 후보 광주 방문 반대 목소리 내기로

광주·전남 시민단체 긴급간담회 열고 결정

광주·전남 시민단체는 국민의 힘 윤석열후보 광주방문(11월 10일)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 21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옛 전남도청 1층에서 윤후보에 대한 지역사회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9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집결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로 결정된 데에 따라 기존에 결정했던 '무대응' 방침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광주 방문 반대의사를 담은 현수막을 걸기로 했으며, 이 밖의 행동들은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윤후보의 국립5·18민주묘지 방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발로 들어서지 못하는 방향으로 단호하지만 평화롭게 진행하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에도 이와 같은 뜻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해 오월 단체는 시민사회와 별도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백신 접종 뒤 수영선수 숨져 유족들 "인과성 인정하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숨졌던 수영선수 유족들이 8일 순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은 죽음과 백신의 인과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순천시의회에서 "국립과학사연

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심근염이었으며 '피해자와 백신과의 인과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며 "질병청은 국과수의 의견을 뛰어넘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영선수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7월 29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두통과 근육통 증상을 보였으며 3일 뒤 숨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